第299回國會 (臨時會) 南北關係發展特別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1年4月29日(金)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議事日程

1. 남북경제협력 관련자 등 의견 청취의 건

審査된案件

1. 남북경제협력 관련자 등 의견 청취의 건 ····· 1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국회 제4차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임시회에서 금강산 및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분야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데 여야 간사 위원님들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 분야 협력에 관하여 정부의 보고와 대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남북경제협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남북관계 개선과 사업 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북경제협력 관련자 등 의견 청취의 건

(10시11분)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북경제협력 관련자 등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견 청취는 먼저 통일부로부터 금강산·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 박홍식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부회장, 김영일 남북경제인총연합회 고문으로부터 차례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인택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위원장 박주선 왜 자리가 불편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니, 뭐……

○박선숙 위원 의사진행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진행할 테니까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무도 안 계시는데……

○박선숙 위원 개의할 때는 한나라당 위원님이 계셨어요, 김성수 위원이.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아무도 안 계신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박선숙 위원 지금 오고 계신다고 연락이 와서……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무도 안 계시네……

○문학진 위원 왜 이렇게 썰렁해?

○박선숙 위원 한나라당에서는……

○문학진 위원 보이콧?

○박선숙 위원 아니 아니,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박주선 김성수 위원 어디 가셨어요? 지금 화장실 가신 모양인데? 손수건도 놓고 나가셨는데?

○문학진 위원 왜? 보이콧을 해?

○박선숙 위원 아니, 보이콧 안 해요.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늦어지시는 거라서……

저희가 한나라당 위원님이 계신 상태에서 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위원장 박주선 아니, 한나라당 위원 없으면 위원회가 안 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니, 그런데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용경 위원 '아무도'라니 무슨 말씀이에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한나라당 위원님이 아무도 안 계시다 그 말입니다.

○문학진 위원 현 장관,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의사정족수 되면 시작하는 거지 뭘 그래?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경 위원 아니, 말을 똑똑히 하셔야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한나라당 위원님이 아무도 안 계셔……

○이용경 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박주선 그냥 진행하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여간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러면 회의합시다.

○위원장 박주선 진행하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5.24 조치 이후의 남북 교역 및 경협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배포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5.24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과 북한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 취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5개 분야 대북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불허하였고 남북 간 모든 교역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방북과 대북 신규투자를 불허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하였습니다.

5.24 조치의 실효적 집행·관리를 위해서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모든 교역물품을 통일부장관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북한산 물품의 제3국 우회 반입 차단을 위해서 수입통관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5.24 조치 이후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신의주 수해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서 일시 보류된 취약계층 지원도 지난 3월 투명성 강화 조건 하에서 재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관련 사항입니다.

5.24 조치 시 개성공단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생산 활동을 유지하였습니다. 4월 현재 122개 입주기업이 가동 중에 있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은 큰 차질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0년 생산액은 2009년 생산액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북측 근로자는 5.24 조치 이후에도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5.24 조치 직후 남북교역 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남북 교역업체들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全) 교역·경협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부의 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반출·반입을 허용하였습니다.

5.24 이전 기 반출된 원부자재의 완제품과 선불금이 지급된 일반 교역물품의 반입을 허용하고 5.24 이전에 기 발주되어 보관 중인 원부자재 재고분의 반출을 허용하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실시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총 720억 원의 긴급자금 특별대출을 승인하고 이 중 교역업체 165개사, 경협업체 4개사, 금강산협력업체 15개사 등 184개사에 대해 총 384억 원의 대출을 집행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체류인원은 남북관계 등 관련 상황을 보아가며 신축적으로 관리하고 수리, 교체, 개량을 위한 설비 반출은 허용하였습니다.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였으며 5.24 조치의 투자확대 금지로 인해 공장 건축이 중단된 협동화공장 공동투자 기업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페이지 북한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 취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8일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현대의 금강산관광 독점권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정부의 입장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자산몰수 동결조치를 철회하고 3대 조건 해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및 북핵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북한의 조치는 사업자인 현대와의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당국 간 합의 및 국제규범과 관례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예.

○이철우 위원 오늘 남북발전특위 그야말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 좀 촉구를 하고 또 우리도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난 4월 7일 날 스티븐스 미국 대사를 만나서, 그것도 위원장 자격으로 만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또 위원장님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판을 한 데 대해서는 우선 다른 어느 나라도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자기 정부를 비판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야당의원 자격으로 만났더라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위원장 박주선 이철우 위원님, 잠깐만요.

장관님, 다른 일정이 있으신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차관이 대신 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십시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통일부장관 먼저 질의를 하시고, 아니 의사진행발언 듣고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통일부장관 답변하시고 가신 다음에 우리 진술인들 진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상임위 위원장 자격으로 했다면 상임위원장이 공식 사과를 하고 위원장을 사퇴해야 된다는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당의 원내 대변인이 이것은, 남북관계발전특위는 한나라당의 남북관계 실패에 따라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또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계속하면 남북관계 실패 때문에 이 발전특위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우리 한나라당이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사퇴를 하시고, 또 전현희 대변인도 공식 사과와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뜻이고 제 혼자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사진행발언치고는 참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을 때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비핵화 정책이 너무 소극적이고 그리고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수수방관이 아니냐, 그래서 6자 회담국의 동등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좀 나서서 6자 회담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양해를 하면서 지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터프 앤드 다이렉트 토크스(tough and direct talks)를 이야기를 해 가지고 대담하고도 적극적인 대북 접촉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었는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대북 압박만을 가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전체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본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의견에 대해서 죽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건설적인 의견에 대부분 공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압박도 필요하고 대화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는다 딱 그 한 마디 했어요. 그 한 마디 했는데 도대체 정옥임 위원이 어디서, 무슨 근거로 내가 대북정책을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서 비판했다고 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특위 위원장이라고 하지만 내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외통위 위원으로서 여기 통일부장관 와 계시는데 수없이 비판을 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이지만 나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가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가치와 판단을 바꿔라, 그래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편으로 옹호하고 한편으로 홍보하는 역할만 하라는 것은, 그것은 저에 대한 요청이나 또 주장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위원장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립성을 말씀을 하셔야지 내 생각과 가치와 판단에 대한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요구사항으로서 접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문제는 사과할 내용이 저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위원장의 사퇴 여부는 좀 적절치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 대변인이 이 특위 구성의 경위가 대북정책 실패를 전제로 해 가지고 특위가 구성됐다고 하는 부분은 뭐 본인의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변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이야기이고, 대변인의 판단을 제가 통제하거나 지휘하거나 할 수가 없는 위치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철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개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꼬리 잡고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당에서 요구한 것은 사과를 요구하고, 위원장님 사퇴를 요구하고 그런 것을 더 논의하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선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주선 박선숙 간사 말씀하세요.

지금 통일부장관도 바쁘고 진술인도 지금 바쁜 일정을 내서 오셨기 때문에 간략히 좀 말씀해 주세요.

○박선숙 위원 지금 한·EU FTA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다른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북관계특위를 개회한 것은 지금 국회의원이나 정부만 참석하는 회의가 아니어서 어렵게 모신 민간 경제협력사업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주신 말씀 가운데 위원장 말씀 지금 설명하신 것은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를 만났을 때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진 것과 다르게 위원장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서 언급한 일이 없다라고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그에 관한 책임과 사과 요구는 온당하지 않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다음 전현희 대변인, 우리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 가운데 남북관계특위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때문에 구성된 것이다라는 논평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논평의 전후관계는 아마도 우리 박주선 위원장님의 스티븐스 대사하고의 면담 보도 이후 정옥임 대변인의 논평에 대한 대응 논평적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나, 그 가운데 남북관계특위의 구성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때문에 구성된 것이라는 것은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당 지도부하고 지금 확인을 한 부분이고,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에서 논의하신 부분이 있겠으나 그 논의의 여러 가지 전제가 좀 해소된 부분이 있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신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여당 드려야지…… 여야를 구분해서 해야 공정하니 회의 진행한다 하고 중립성이 있다 할 테니까.

○신지호 위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 주신 세 분, 개성공단 사업자 분들 귀중한 시간인데 저희들이 이런 모습 보여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짚을 건 짚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것은 위원장

님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을 저희들이 통제하겠다, 바꿔 달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외교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금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을 저희들이 터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지……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들이 무슨…… 대한민국이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또 국회 특위 위원장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통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선숙 민주당 간사위원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전현희 대변인이 거짓, 사실무근의 논평을 했다, 그러면 공당의 대변인이 서면으로 모든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그러한 사실무근의 잘못된 거짓 논평을 냈기 때문에 바로 그 전현희 대변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는 그런 논평을 내야지 마땅한 거지, 치고 빠지는 무슨 전법 비슷하게 사고는 누가 치고 여기서 뭐 한 마디 이런 말로 수습하고 절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현희 대변인 명의로 그 논평이 사실무근의 거짓 논평이었음을 사과하고 인정하는 그런 논평을 내줘야지만 이 특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우선 제가 신지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스티븐스 대사를 만나 가지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으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도 없으면서 외교의 금도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없이 오해를 전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가 여기서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현희 대변인이 대북정책을 실패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평가, 그리고 실패를 전제로 해 가지고 이 남북관계발전특위가 만들어졌다 하는 여부는 실패는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이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무근이라는 말씀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우리 특위 내의 일을 가지고, 특위의 임무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대변인 논평을 가지고 이 회의 운영이 발목이 잡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초래된다 하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신지호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남북관계특위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을 확실히 지켜 달라 하는 주문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조치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문학진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박주선 짧게 좀 하세요.

○문학진 위원 짧게 할게요.

지금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겠는데, 박주선 남북특위 위원장이 스티븐스를 언제 만났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얘기 들으니까 4월 7일인가 만났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 무슨 논평을 냈는지 나는 지금 내용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남북특위 회의 소집을 급작스럽게 한 게 현대아산 그다음에 개성공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지금 봉착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걸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들 내셔 가지고 이렇게 모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분들 얘기를 좀 듣고, 그리고 지금 내용도 모르는 무슨 스티븐스하고 박주선 위원장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현희가 무슨 논평을 냈는지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가지고 무슨 콩이야 팥이야 하고 있어요?

○신지호 위원 문 위원님만 모르시지요, 지금.

○문학진 위원 누가 알아요, 누가?

○신지호 위원 다 알아요.

○문학진 위원 전혀 관심사도 아닌 것 가지고 말이야, 왜 외부 인사들을 모셔다 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철우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말다툼할 것이 아니라 선거도 끝나고 분위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파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모시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문 위원님 말씀이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

회를 하고, 한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박주선 아니, 이철우 간사대리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차피 정회를 해 가지고, 정회 필요성이라는 것은 간사끼리 만나 가지고 말씀 나누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을 하고 간사님들끼리 만나서 말씀 나누시기로 하고……

○이철우 위원 한나라당 의견을 다시 모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주선 지금 진술을 하기 위해서 바쁘신 분들 와 계시고 통일부장관도 지금 바쁘시고 그러니까 이철우 위원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간사끼리 만나서 말씀하시고.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선 예,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남북관계발전특위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동안 남북이 경색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이 남북관계 문제를 풀어보자 해서 특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지적은 남북관계발전특위를 하지 말자는 것인지, 남북 간의 경색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게 국회에서 남북관계특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주선 위원장님하고 스티븐스 주미대사 간의 대화는 박주선 위원장님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근거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주선 위원장님이 그동안에 우리 특위를 얼마나 원활하게 운영해 왔습니까? 저희들은 보다 더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이 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 때문에 한반도가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지적하고 싶지만 그동안 박주선 위원장님은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여야 간에 이 문제를 국회에서 잘 풀어보자 이런 취지로 운영해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나라당이 박주선 위원장님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그것도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대북 간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전환기를, 그 전환점을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가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고, 박주선 위원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박주선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남북관계발전특위가 남북 간의 경색을 푸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좀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반도에 큰 전환의 시기가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나라당이 이제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큰 틀로서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한 6개월 남짓한 이 시간 동안에 현 정부가 남북 간의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오히려 현 정권은 굉장히 큰 심각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이게 안 되면 우리 국회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 민간단체에서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속하게 회의를 진행해서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푸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지호 위원 위원장님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현희 대변인 논평하고 관련해서……

○위원장 박주선 신 위원님, 이용경 위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용경 위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전문위원들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들이 오늘 회의 어젠다니 뭐니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특위에 전문위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통외통위의 전문위원이 하는 건지, 그분들이 이 특위 운영에 대해서 별로 준비된 사항들이 없어서 여기 오는데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한나라당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위원장님이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의견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스트릭트(strict)하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단지 대변인에 관한 논평은 사실, 대변인들은 뭐 별의별 소리, 죄송합니다마는 다 하시는데 우리가 대변인 논평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 사실 상임위라든지 국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리라고 봅니다, 이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한나라당에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두 분 간사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시면 좋겠기에 한 5분 동안만 정회를 하는 것을 저는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제가 중립을 지켜야 할 입장에 있고 회의 운영이 원활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야 간사끼리 합의를 하셔 가지고 정회를 요청하기 때문에 10분을 달라고 하고 또 5분을 주시라고 말씀하시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신지호 위원 발언을 하고……

○위원장 박주선 정회를 해 가지고 말씀하셔도 되지요. 시간만 끌 필요가 없잖아요.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말씀하십시오.

○鄭玉任 委員 제가 조금 회의에 늦게 참석한 관계로 오늘 박주선 위원장님의 해명말씀을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스티븐스 대사에게 오바마 행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수수방관적인 태도를 지적을 했는데 언론에 잘못 나왔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위원장 박주선 나는 언론에 잘못 나왔다 안 잘못 나왔다 그런 이야기는 한 일이 없고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비핵화정책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으로서 박주선 위원장님과 직접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로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언론에 한두 군데만 나온 것이 아니고 참으로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스티븐스 미국대사가 언론과 관련해서 지금 거짓말을 했다는 결론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참으로 희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현희 원내 대변인의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전현희 원내 대변인의 개인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브리핑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현희 원내 대변인 민주당 소속 박주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퇴 요구 관련 서면 브리핑으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지 박주선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로 특위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박주선 위원장께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미국대사 앞에서 비판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이 회의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요. 또 몇 가지 곡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박주선 위원장께서는 국회남북관계특위의 위원장님이십니다. 국회 위원장님 자격이셨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스티븐스 미국대사를 만났을 때 개인 의원 자격이 아닌 위원장 자격으로 가셨다고 했고, 민주당 원내 대변인뿐만 아니라 언론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스티븐스 대사의 반응은 '미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한반도 주변 나라의 국회 위원장이 한국대사를 찾아가서 자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또는 이 위원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비판하시고 비난하시고 냉소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하실 수 있는데 적어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공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갑자기 원내 대변인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이런 논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공방을 벌이느냐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쪽의 이사철 간사께서 박선숙 간사님과 함께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분히 사과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왔는데 상황이 너무나 저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치달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제가 평소에 정옥임 위원님을 존경을 합니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분이시고 굉장히 판단이 예리하신 분이고 그런데, 지금 시간

이 없기 때문에 다시 번복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 위원께서 오시기 전에 스티븐스 대사와의 면담 과정과 내용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내가 스티븐스 대사에게 비판한 일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정부의 소극적 대북정책 자세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박과 대화가 병행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압박정책을 꼭 그렇게 회의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꼭 회의적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는다 딱 그 말 한마디예요. 그런데 사과할 내용이 있어야 사과를 하는 것이지 사과할 내용이 없는 사람에게 사과를 하라는 이야기는 수세미에서 피를 짜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말씀인데 위원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회의 운영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위원장이 생각과 판단과 가치를, 위원장이기 때문에 함구하거나 또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유신독재나 군사독재, 전제군주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저는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중립적인 지위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쁘시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현희 의원이 어떤 내용으로 논평을 하셨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특위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전제로 해 가지고 대북정책을 시정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고 현재의 대북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라도 좋은 방향과 길을 찾아서 남북관계를 원만히 또 원활하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진행하십시다.

○이철우 위원 진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서 피해를 본 기업에서 오셨는데 우리 여야 위원들 간에 말다툼이나 하고 입씨름하는 것처럼 비쳐서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하되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나라당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전현희 대변인도 아까 박선숙 간사님께서 대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선에서 검토를 해서 그 이후에, 존립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우리 입장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진실공방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고 또 유연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들어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께서 다른 바쁜 상황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5분씩 우선 질의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진술인들에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진술인들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모든 말씀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장관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부장관이 늦게 들어오시는데 오늘 저희가 요구해서 참석하시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배려에 의해서 참석하신 것입니까?

○위원장 박주선 요구를 해서 참석했습니다.

○이용경 위원 요구를 해서 참석했으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주선 아마 정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용경 위원 정회를 했어도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위원장 박주선 속개가 됐는데 연락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용경 위원 행정부의 장관이 국회 위원회에 참석하는 원칙이 뭔지가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용경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앞으로 통일부장관께서는 이용경 위원님 말씀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조금 더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지금부터 통일부장관께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선 위원 장관님 어제 카터 만나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 위원 왜 갔대요, 북한?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뭐……

○송영선 위원 5분이니까 간단간단히 해 주십시오.

실제로 북한이 전쟁 가능성이 있는가, 김정일이 희망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김영남하고 만나서 변두리만 때리다가 돌아올 때쯤 돼서 쪽지 하나 들고 온 것인지……

○통일부장관 현인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뭐라고 판단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어제 저희가 한 50분 만나서 북한 방문에 관한 카터 대통령 일행의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본인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내용이 대부분 다 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이미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남북정상회담 할 의사가 있다는…… 수잔 솔티는 메신저도 아니고 마우스피스라고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만 전해 주고 간 것인지,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하여간 어제 제 느낌으로는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 그대로 그 자체가 더 이상 보태고 더할 것도 없이 그냥 본인의 생각과 전달 받은 것을 그대로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선 위원 오늘 다른 질문은 생략을 하고 경협 관련이니까 경제협력에 관련된 것으로 먼저 통일부장관께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이 북한산입니까, 한국산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말하자면 제품을 쓰는 수입국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송영선 위원 그러면 미국은 우리 것을 전혀 안 가지고 가겠네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난 4월 19일에 행정명령 13466호·13551호…… 내용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잘……

○송영선 위원 이 행정명령 내용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지난 2008년과 2010년에 각각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13551호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추가적인 조치라는 것은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국으로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면 수입국에서 판단을 하면, 수입국에서 북한산이라고 생각하면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제3국을 거쳐 들어와도 안 받아준다는 얘기인데.

○통일부장관 현인택 한미 FTA에 의하면 북한산은 지금 미국이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북한산은 뭐라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니까 개성공단 제품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미리, 3월 31일 커트 캠벨 미 국부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북한산 제품의 미국 반입은 금지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에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은 개성공단 제품 자체를 한국산이 아닌 북한산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FTA가 체결되더라도, 지금 개성공단 제품이 남북경협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북한의 낮은 인건비를 통해서 중국산에 대한 경쟁력을 갖자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큰데.

○통일부장관 현인택 거기에 대해서는요, 한미 FTA 협정문에 보면 협정 발효 1년 후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여부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영선 위원 그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한미 FTA 협정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송영선 위원 협정문 초안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행정명령은 4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협정문은 우리가 전에 만들어 가지고 계속 7년간 다듬고 다듬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열흘 전에 행정명령

에서 이것을 확고하게 명기를 했단 말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한미 FTA 협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가 전부 다 합의를 하고 지금 각 국회의 비준 동의를 남겨 놓은……

○송영선 위원 제가 그것은 알거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니까요.

○송영선 위원 저도 17대 때 정조위원장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 다루었습니다. 그 원본이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오래전인데 불과 열흘 전에 미국이, 오바마 정부가 행정명령을 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달 전에 커트 캠벨이 FTA가 체결되더라도 북한산은 안 받아들이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성공단 업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어쨌든 저희 정부 입장으로서는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가 합의한 것처럼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이것이 한국산으로 인정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러면 개성공단에 계신 기업체들이 '우리 것은 수출이 안 됩니까?'라고 얘기할 때도 장관님은 그냥 "FTA 협의문에 의해서 1년만 기다려 달라, 그때 가서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어쨌든 간에 그것은 한미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협의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니까요. 지금으로서는 협의가 발효되면 1년 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 그대로 그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鄭玉任 委員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정옥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鄭玉任 委員 지금 통일부에서 북한 진출 기업들 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鄭玉任 委員 그런데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어떤 부당한 사례 같은 것을 리스트별로 죽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언제 끝납니까? 지금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하고 계신다면 언제쯤 그 작업이 끝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저희가 언제 끝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끝나는 대로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런데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애초에 개성공단을 만들 때 통일부와 북한 당국 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상당히 심각한 컨틴전시(contingency)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조처라든지 우리가 북한 당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실무 접촉을 통해서도 여러 번 북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내용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개성공단을 만들 때 이미 그 내용은 다 있는데 북한 당국이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중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이 제대로, 원래 계획된 대로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그간에 있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로서는 딱히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내용도 사실 그렇게 충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개성공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제도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성공단 발전에 조금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지난 내용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바로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보장 장치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래의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비해 놓은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

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보험 같은 것은 지금 계속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보험이 적용된 사례도 있는데,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도 개성공단 일부 한두 업체가 보험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손해를 보상받은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지금……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정부는 보험을 들라고 독려하는 것이지 정부가 그 보장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보험은 물론 기업이 들어야 되겠지요.

○鄭玉任 委員 그런데 정부가 중간에서 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제가 있습니까? 메커니즘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남북교역업체들 이렇게 해서 184개, 아까 제가 보고 드렸을 때 그렇게 지원을 했다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작년 4월에 북한이…… 지금 금강산 관광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시설들과 자산을 몰수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몰수된 자산이 현재 북한 당국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치된 상황인지 아니면 북한 당국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실무협상이 있었는지, 두 번째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몰수된 자산의 피해자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포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에 대해서는 그간에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산 상태는 북한이 몰수 동결 딱지를 붙여 가지고 전혀 그 시설들이 이용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금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鄭玉任 委員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원들이 들어가서 꾸준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나마 건물들도 앞으로 다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관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 관리들을 하고 있고요. 남북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2월에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실무회담이 열렸고, 그 이후에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결 몰수 조치가 있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업체들에 관해서는 그간에 보고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까 오시기 전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재윤 위원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예.

○이용경 위원 MB정부 출범할 때 남북관계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중간에 변동이 있었으면 최신 버전이라든지, 변동이 없었으면 MB정권 출범할 때 남북관계에 있어 이 정권에서 뭘 하겠다는 그 목표 설정한 자료를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이용경 위원 지금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위원장 박주선 이용경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되셨을 건데,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위원장 박주선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어제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우리 도하 언론에, 정상회담 가능성이 신문에 났는데 그게 어디까지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어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터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어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제 카터 대통령이 오전에 다 방문을 마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북한의 외무성 부상이 와 가지고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도로 숙소로 돌아가서 거기서 구두로 메시지를 불러 주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 내용은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을 만날 의향이 있다 소위 그런 내용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김성수 위원 따로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전한 말은 없고 기자한테 그렇게 브리핑한 게 전부예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책이라고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그런 제의랄까요, 그것이 지금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직접적인, 예를 들면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김성수 위원 장관님, 시간이 짧으니까…… 카터 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무슨 자격으로 온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개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신문보도가 났더라도 개인 자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나도 검토할 가치가 없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없다 하기 전에 개인 자격을 가진 사람을 통한 메시지 전달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개성공단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요.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봉제 같은 것, 우리 천을 가지고 아웃소싱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미국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으로서는 미국 정부가 그것을 한국산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FTA가 발효되면 FTA 발효 1년 후에 역외가공위원회를 가동해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한반도의 비핵화가 얼마나 진전됐느냐 또 환경, 특히 미국이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생각하는 것은 환경 노동 경영 관행들이 제대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성공단 제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인정할 만하다 하면 물론 그 수입을 결정하겠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인정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수 위원 한미 FTA가 만약에 체결이 되면, 체결이 될 것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에서 재산몰수 한 게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김성수 위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제기구에 손해배상이라도…… 비록 배상도 형식적인 것이지만 그럴 수 있는 방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 정부 입장으로서는 북한이 재산을 동결 몰수 조치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 동결 몰수 조치를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상화에 나서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성수 위원 아니, 정상화가 아니라 지금 같이 일방적으로 재산몰수가 됐을 때 그냥 당하고만 말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거냐 그걸 묻는 거라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시설 모든 것들이 지금 북 측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 측이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정부 간 합의를 어긴 것이고, 둘째는 우리 현대와의 합의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국제적인 규범과 모든 관행들을 전부 다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조치가 대단히 부당하고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장관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다녀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언제든지 만나서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경색도 풀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긴장도 완화하고 남북평화의 기틀을 이명박 대통령이 놓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총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움직일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연내에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좋은 여건들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돼 있지 못하다는 것이 판단이고요. 또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가로막혀 있는 이 장애들이 일차적으로 그야말로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장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천안함, 연평도 이 불행한, 그리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사태에 대한 그런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북한이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진솔하게 좀 나와야 문제가 앞으로 간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장관님,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들을 대통령의 결단으로 풀어야 하고 대통령이 결단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남북 간에 얽히고 얽힌 이 실타래를 단숨에 풀어야 합니다. 저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정상회담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원도 고성을 갔더니 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지역의 경제가 거의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 강원의 경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강원도 경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금강산 관광은 조속히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고성 지역의 경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잘 해결되어야 문이 열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정부가 북한을 압박하고 또 북한에 요구하기보다 정부가 대북정책을 보다 더 유연하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 손이 가시가 돋친 손이라 할지라도 내밀고 가시를 하나 둘씩 걷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특히 지금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 경제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개성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남도 북도 미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개성공단 활성화를 포함해서 남북경협 이것 조속히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물론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이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 중국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을 활성화함으로써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그리고 남북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저는 남북 경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숙 위원 5·24 조치 이후에,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남북 개성공단 이외에 직접 북한에서 경제사업을 하고 계셨던 남북 경제사업자들을 올 2월까지 완전 철수시키셨지요? 2월 28일자로 750개 정도 되는 남북 경제협력 교역업체, 북한에 직접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요. 모르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철수, 그 말씀은……

좀 더 질문하시지요. 제가 지금……

○박선숙 위원 종료시켰어요. 완전 종료시켜서, 철수라는 게……

○통일부장관 현인택 철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5·24 조치 이후에……

○박선숙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혹시 지금 사업 중단으로 해서 입는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은 기업들도 나름대로 추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박선숙 위원 통일부는 한번 추산을 해 보셨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얼마쯤 되는 것 같으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을 얼마라고 딱 저희들이 지금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박선숙 위원 대체로 얼마부터 얼마 정도까지로 추산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별도로…… 하여간 저희들 여러 가지 추산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박선숙 위원 제가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공유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비밀 정보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제가 그것을 딱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선숙 위원 5·24 조치 이후에 체류인원 제한 등으로 해서 개성공단 쪽의 기업들에서 실제로 기술교육이나 품질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량률이 상당히 늘고 있다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한조치를 일부 완화해서 인원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선숙 위원 지금 현재 몇 명까지 늘리셨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는 한……

○박선숙 위원 757명까지 늘려 주셨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래도 모자라지요. 5·24 이전에는 1000명이 체류했었고 그 이후에 사업은 계속 늘어 가고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설비 못 들어가고 사람은 줄여 놨는데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입경을 매일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선숙 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질문드렸는데, 757명이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고 1000명이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현실에서의 사업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757명은 괜찮고 1000명은 안 되고 하는 그런 기준들은 사실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빨리……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해야 될 것도 많지만 당장은 막힌 것, 5·24 조치부터 풀어주시고 출퇴근 수단 문제라거나 기숙사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문제는 해야 되지만 일단 5·24 조치부터 먼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래서 하여간 출입제한조치에 관해서는 그게 여러 가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박선숙 위원 말씀 알지요, 제가 여러 번 여쭤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통일부에서 받았는데 북한의 올해 식량부족량이 얼마라고 예측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을 저희가……

○박선숙 위원 받은 자료는 FAO하고 WFP 자

료를 인용해서 109만t 부족이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통일부 생각도 같으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은 저희가……

○박선숙 위원 많은 전제를 갖고 드리는 질문이니까요 생각이 같으신지 아니면 좀 차이가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그 식량부족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로 정확히 몇 만t이다 이렇게 정부 공식 발표……

○박선숙 위원 WFP의 판단과는 좀 다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조금 다릅니다. WFP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박선숙 위원 그러니까 FAO하고 WFP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WFP가 몇 개월 전에 한 판단과 최근에 한 판단이 또 다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숙 위원 그러니까 11월보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기 때문에 WFP 자체도 지금 자기들이 내렸던 판단과 또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박선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부가 매년 WFP나 FAO나 다른 국내의 연구기관들하고 종합해서 매년 올해의 북한 식량부족분은 이렇게 예측된다라고 말씀해 오셨는데 올해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히 늦추는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특별히 늦추는 이유는 없고요, 뭐 하여간……

○박선숙 위원 연초에 하시잖아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저희들이 국내기관의 평가도 같이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취합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4월 안에는 나오나요? 보통은 연초인데 너무 늦어져서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4월이면 오늘 29일이거든요. 다 됐고요.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빨리……

○박선숙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경 위원 제가 아까 통일부의 목표가 뭐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주시겠지만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비핵화와 개방을 통해서 북한이 개방을 해 주면 북한에 경제적인 협조를 해서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불까지 올리도록 협조하겠다, 이게 목표라고 봐도 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게 우리……

○이용경 위원 목표가 있습니까? 있으시면 뭔지 말씀해 주세요. 특히 현 장관님의 재임기간 동안의 목표가 이거다 이렇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소위 대북정책의 기저적인 정책으로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또 북한이 스스로 개방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북 경제협력을 이루면서 결국 북한이 국민소득 3000달러 정도로 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대북정책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경 위원 그게 목표라고 말해도 되는 거지요?

일단 그 목표에 대해서 제가 좀 한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과 남한이, 북한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게 아니고 '비핵화와 개방은 너희가 이렇게 따라와라' 이것이 목표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3000불까지 가는 경제협력을 해 주겠다 이러는데, 저는 그러한 면에서 이것이 상호적인 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두 정권의 협력에 있어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비핵화와 개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그 로드맵의 지표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지표 관리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현 장관님 보시기에 비핵화와 개방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시는 동안에 이런 것을 달성하겠다 했으면 어느 정도 그 전략이 먹혀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비핵화에 대해서는 지표를 무엇무엇으로 설정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그것의 50%는 달성했다든지, 아니면 개방에 대해서 우리가 지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 30% 달성했다든지 이러한 자체 평가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남북관계 상황의 전반적인 것이

그대로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용경 위원 장관님, 일단 이러한 지표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보기보다는 지금 우리……

○이용경 위원 지표가 일단 없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내용을 보시면 그 지표가 그대로 보시…… 어느 게 20% 달성이다, 30% 달성이다,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대단히 내용적으로 그야말로 델리킷(delicate)한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요.

○이용경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다르게 질문을 할게요.

장관님께서 처음에 맡으셨을 때의 구상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핵화가 이만큼 이루어졌다 또는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비핵화 문제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어렵고 또 중요하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문제가 달리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경 위원 장관님, 국정을 맡으신 분께서 그렇게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그런 설명은 좀 당치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사실 비핵화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지, 개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MB 정권에서 남북관계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겠다, 그러면 지금 사실 남북관계가 잘 진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많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는데 로드맵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의 노력만 갖고 될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든지 지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만큼 진전했기 때문에,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진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또 상대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거부감을 갖고 안 하려고 하고 또 핵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상대와의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어렵고 지루한, 말하자면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전체적인 각도에서 이 문제를 같이 좀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경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전 정부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현 MB 정권이 지적을 많이 했고 지금 새로운 팀이 들어와서 하면……

상대가 바뀐 것도 아닌데 같은 조건하에서 왜 너희는 이렇게 했냐, 너희는 저렇게 했냐 했는데, 그러면 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는 통일부의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표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 드리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한반도에 평화의 정착이라든지 통일로의 진전이라든지 아니면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 또 경제적인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동포의 인권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현 통일부가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 뭐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전 정권도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했고 현 정권이 만약에 그쪽 상대방의 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다 이러면 몰라도 똑같은 정권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 당연히 비교가 되는 상황에서, 평화의 정착만 보더라도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안 주겠다, 그러면 돈을 안 주고도 똑같은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지금 북한에서 사고를 친다, 이것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소구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철우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철우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철우 위원 예, 간단히……

장관님이 이제 바쁘셔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경협 기업체 또 현대아산 이렇게 오셨는데 평소에 통일부하고 대화는 잘 하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래서 여기는 대표 되시는 분들 오셨는데, 평소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를 다 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또 오늘 장관님 가시고 난 다음에 통일부 관계자가 여기 있으면 이분들 애로사항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전달하면 그것을 국회 보고를 통해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니까 보고를 통해서 시정조치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했다, 장관님이 그런 약속을 해 주시고 가야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장관님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또 통일부도 만날 이야기했는데 되는 것은 없고 또 어려운 사항만 있고…… 여기 애로사항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나중에 별도로 만나서 답변을 준다, 국회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철우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께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 이게 우리 내국산이냐 아니면 외국산이냐 하고 질의를 하셨더니, 수입국의 판단 문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통일부의 입장은 뭡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것은 통일부 입장이 다르고 또 뭐가 다르고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사실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니, 통일부의 입장은 뭐예요?

국내산입니까, 아니면 외국산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 말이지요?

○위원장 박주선 예.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부의 입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정 발효 1년 이후에 그런 위원회를 한미 간에 만들어 가지고 개성공단 제품이 우리 한국산으로 되도록 하는 노력을 당연히 우리 정부는……

○위원장 박주선 아니, 한미 FTA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통일부의 입장이 개성공단 제품이 우리 내국산이냐, 아니면 외국산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 한국산이 되도록, 다른 수입국들하고 얘기할 때 저희들은 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위원장 박주선 아니, 되도록 노력을 하려면 우리가 한국산이라고 인정한 전제하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주선 통일부의 입장은 국내산으로……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당연히 그래야지요. 지금 우리 헌법상에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돼 있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자재를 가지고, 우리 기술을 가지고, 우리 자본을 가지고, 우리 영토에서 우리 국민이 만든 것인데 당연히 대한민국 국산이라고 봐야지요. 당연하지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30초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2007년 한미 FTA 협의 되는 그 과정에서의 맥락을 다시 한번…… 관계자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절차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을 넣을 때의 한미 양국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전제 위에서 넣어준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협상 협정문이 만들어진 맥락과 취지의 후퇴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선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면, 통일

부장관이 일정 관계로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일부 이석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국회방송에서 촬영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 분 진술인들에게, 5분 이내에 하실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평소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해서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현대아산의 김영수 상무입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드리고, 구체적인 애로나 건의사항보다는 간단하게 현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로 저희 현대아산은 물론이고 170여 개 협력업체, 그리고 고성군 지역경제의 피해 상황은 막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고요, 저희가 간략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가 매출액 기준으로 약 한 3500억 정도 금강산관광에서 손실을 봤고요, 저희 170여 개 협력업체는 약 한 1500억 원이 됩니다. 금년 3월까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고성군은 60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저희들 협력업체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특히나 모객대리점을 하고 있는 한 100여 개 업체는 거의 금강산관광만 하고 있는 업체들인데요, 휴업이나 도산, 폐업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통일부장관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력기금이 저희 회사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60여억 원 협력업체에 지원이 됐지만 금강산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통일부장관 보고에서도 잠깐 있었지만 지난 4월 8일 날 북측의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3년 가까이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 그리고 또한 그것이 재개될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현대아산에 부여한 독점권을 취소하겠다.

그 주요내용은 첫 번째, '남측을 경유한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이 계속 맡아서 하되 북측을 경유한 해외관광은 아태가 맡아서 한다. 단, 이 사업은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된 법률적 조치를 해당기관에 제기하였고 곧 해당한 국가적 조치가 시행될 거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통일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회사의 입장은,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모든 합의는 일방의 어떠한 통보로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북측의 조치는 유감스럽고 철회되어야 한다.

두 번째, 북측의 이번 조치는 금강산관광 중단이라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온 한시적인 조치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떠한 항의나 이런 것보다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아산은 정부·국회, 여러 부분과 협력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부분들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한 가지 제기하고 싶은 문제들은, 남북 당국 간 관계 경색에 따라서 어떠한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도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아태 담화는 일방적인 조치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담화에서 밝히고 있듯이 금강산관광에 대한 모든 사업권, 심지어 북측 지역을 경유하는 사업권까지도 현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를 했지만.

이는 지난 10년간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이 퍼주기라는 논란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대아산이라는 민간기업이 각고의 노력 끝에 확보한 권리로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의 자산이라기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꾸로 우리가 만약에 설악산을 외국기업에 이런 식으로 준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 이 권리가 얼마나 큰 권리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경색, 악화되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당국 간 관계 악화가 이러한 기업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가능성이었다면 이번 담화로 인해서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그런 국면 아니냐,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10년간 어렵게 확보한 이런 사업권들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중국 경제 의존도,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는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건의사항보다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났으니까 철회하라' 이런 것보다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북측의 아태 리종혁 부위원장이 중국의 인터넷매체와 한 인터뷰를 보면,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신변안전 보장에 관련해서도 공동조사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신변안전과 관련해서는 문서로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입장도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일방의 주장이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저희가 북측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 보면 북측의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의는, 저희가 사업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2월 8일 날 당국 간 회담이 있었듯이 여러 가지 천안함이다, 연평도다, 또 정책적 고려사항이 많겠지만 금강산관광 재개가 일개 기업의 사업이라는 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정책적 차원에서 그렇게 배려되고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울러 특위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박홍식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부회장님, 그리고 신원 대표도 되시지요?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홍식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개성공단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남북경협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국회에서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같이 논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개성공단은 각 개별기업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하고 같이 만들어서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기업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정부가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부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개별 기업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에 나가고 인도네시아·중남미 여기에 투자한 것하고는 분명히 틀리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히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결정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성공단을 만들고 기업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해 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에서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을 해 주고 개별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신원은 2003년도 처음 시범단지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공장을 짓고 아주 정말, 저희가 해외에 7개 공장이 있지만 어느 공단보다도,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저희 기업에 많은 이익도 갖다 줬습니다.

따라서 2공장도 또한 착공을 했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합숙소를 설립해 주고 따라서 인력이, 북측의 근로자들이 얼마든지 들어와 가지고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은 투자를 하면 노동력은 확보가 돼 있는 거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 노동력이라는 것이 개성공단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남측의 기술과 자본은 들어가 있는데 북측의 노동력이 부족합니

다. 공장은 다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2공장까지 지어 가지고…… 1공장이 1000명을 고용할 수 있고 2공장이 2500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직원은, 노동력은 1200명에 불과합니다. 계속 공장이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했고 중국에 투자했다고 하면 기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기업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5·24 조치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로 제출했고요. 그러나 많은 부분 또 풀어줬다고 합니다. 또 많이 풀어줬고요. 그러나 아직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장관님 돌아가시고 했지만 조건을 갖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부는 조건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업은 그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현실적으로 오늘 보고 있습니다. 조건보다는 실리를 취하는 그것이 우리 국민과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측에서는 천안함 이후에도 약 3000명의 직원을, 노동력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급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합숙소 문제가 처음 개성공단 만들 때 같이 합의를 했었던 거고요. 지금 와 가지고는 그것이 달리 해석을 하다 보니까 기업은 투자하고 그러나 노동력은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평양 쪽 거래도 하고 있었고요, 금강산도 이렇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해서는 개성이 조금 더 낫다 이런 평가를 받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성은 양쪽 당국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간 기업이 손실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박홍식 부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북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김영일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 고문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진술인 김영일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꽤 기대하고 왔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요새 막장드라마가 유행이지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엄마가 첫 자식은 버리고 그 후에 재벌하고 낳은 자식은 위합니다.

여기에 개성도 있고 했지만…… 제 얘기에는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5·24조치 이후 우리 기존 업체들은 정부가 버렸습니다. 왜 버렸느냐 하면, 명분은 북한에 단돈 1원도 안 들어가게 하겠다 하면서 개성공단은 연간 5000만 불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 업체들…… 저 20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경협 제일 오래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 정부가 만들어준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투자협의회 이것도 제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고문입니다. 나이가 이제 70입니다.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은 축구로 보면 공격수는 빼 버리고 수비수인 개성공단은 남아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시지만…… 고생하시지만……

그런데 버렸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재개를 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 업계가 제안한 것은 제가 서류로 갈음합니다, 이미 드렸고요.

참 비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첫 번째 시작했을 때, 저는 90년 초부터 했으니까요, 했을 때의 북한과 지금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정책은 무엇이냐? 과거 정책은 어떠한 정부 대 정부의…… 지금 말마따나 퍼주기식 비즈니스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 이 사람들은 퍼줄 돈도 없었고 그냥 열심히 경제원칙에 의해서 뛰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벌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버렸습니다, 자식 버리듯.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북한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평양에서 저녁 야시장도 오픈합니다. 주부들이 집에서 부침개도 붙여가지고 저녁에 나가서 팝니다. 북한이 그거 막지 않습니다. 지금 또 재미나는 것은 북한의 어느 업체는…… 업체한테 제안이 왔는데 주먹밥을 만들자, 하루에 1만 개씩 팔 수 있다, 그런데 그게 2불이다 그래서 돈이 어떻게 있느냐? 돈 있다. 그

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는 다이소라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의 부회장입니다. 다이소가 들어가자, 그게 최근 얘기입니다. 그거 들어오면 장사 잘한다, 변합니다, 지금 북한이. 돈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과 같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거는 우리 중소기업, 개미군단 같은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무슨 어떤 정치적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비핵 개방 3000을 만든 모 정부 인사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조금 다퉜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고 결론은 '경협하지 마라, 통일되면 해라'입니다. 그래 언제 통일이 됩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돈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억수로 날아갔습니다. 저 여태까지 한번도 정부한테 돈 쓴 거 없고 정부한테 돈 달란 적도 없고 교류협력자금은 그림의 떡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장사하고 있지만……

그런데 좀 보십시오. 제가 오늘 와서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지금 사람 불러놓고 여기 몇 분 계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은 밑바닥 인생입니다. 서민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입니다. 여러분들, 밥 굶어 보셨습니까? 집에서 쫓겨 나온 적 있습니까? 우리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우리 업체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인사가 "당신 부인 잘 있어? 도망가지 않았어?" 못 견딥니다. 대북사업을 못 견딥니다.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마저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부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저승사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할 얘기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의 정책은 주민들 정책, 북한주민과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이게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양에 소프트랜딩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평양공단을 계약했습니다, 북한 측하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반대하더라고요. 저의 전략은 그거였습니다. 개성은 우리 국내 인건비, 인력난은 개성에 들어가자 그러나 평양은, 제가 만든 평양공단은 북한의 주민을 위하는 생필품 위주의 사업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서로 공동으로 비즈니스하자라고 했는데도 막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영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간 하시고 그다음에 보충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힘듭니다.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통일이 되면 더욱……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 대표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힘들다, 어렵다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김영일 대표님은 언론 기고도 많이 하셨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많이 실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왜 이리 자리에 없느냐 하는데 국회의원이 정말 바쁩니다. 저도 많은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회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보기에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의원들 보좌진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고 또 여야 간사대표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듣고 전달합니다.

아까 제가 통일부장관에게도 반드시 오늘 이야기 듣고 국회에 보고하라고 한 이유가 뜻이 잘못 전달되고 또 정부를 상대로 하면 뜻을 아무리 전달해도 아까 저승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국회에서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일 대표님, 남북투자기업협의회 회장님이신데 남북 간에 무역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진술인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했습니다.

○이철우 위원 남북 무역만 했습니까? 다른 나라와의 무역은 안 했습니까?

○진술인 김영일 저는 26살 때부터 무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미국의…… 무역이 없었고 AID자금밖에 없었는데요……

○이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

다. 대북 관련 무역을 하셨으면 거기에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100% 그것만 한 것이냐, 다른 데하고도 무역을 하면서 일부를 했는지……

○진술인 김영일 저는 20년 동안 대북사업만 했습니다. 어디 한 번도 한눈판 게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대북사업을 하느냐, 제 동창들도 그렇고 친구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30~40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다시 다 마케팅……

○이철우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김 대표님 같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거기의 대표니까 나중에 현황을 저한테 주시면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대북관계도…… 여기 통일부 관계자 있지요?

○통일부교류협력국장 서호 예,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잘 들어서 무역을 계속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법을 하는 분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까지는 공무원들이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80년대 이후에는 기업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일을 잘 못해도 나라는 성장합니다. 왜? 기업들이, 국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더 앞장서서 대북정책은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은 항상 좀 수세적입니다. 법을 위반 안 하려고 방어적입니다. 그러나 기업하는 분들은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면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와서도 호소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반분을 좀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술인 김영일 감사합니다.

○이철우 위원 금강산관광, 그거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중단되어 있어서 국민들도 어렵고 현대아산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잘 압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관광객을 사살하고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사과도 없는데 정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박홍식 대표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국회에서도 방안을 마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 내가 정부의 대표라면, 내가 통일부장관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기업체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잘 들었으니까 정부 입장 같으면 이거 이거는 반드시 조치를 해 달라, 이것만은 내가 생각해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거를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대아산부터 이야기해 주시지요.

○진술인 김영수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단히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사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고 그런데 또 그 지역이 관광지역 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든지 간에 북한이 전적으로 사과하고 어떠한 국제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지금도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고가 난 당시 명승지라고 그쪽 금강산관광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충분히, 우리 정서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이고 피해 관광객에 대해서 어떠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표시를 서너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 정서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고는 보이지만 그런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2월 8일에 어떻든지 간에 당국 간에 금강산관광 재개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이 확실히 보장된 다음에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된다는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별 결실을 못 맺었는데 이번에 북측이 이렇게 보이는 행태들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저희 기업 입장에서 봐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좀 불법적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입장이라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자기들 말마따나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3대 조건에 대해서 할 용의도 있다라는 말을 직접 정부에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이나 저희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단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어떻든지 간에 저쪽 생각이 어떻든지 당국 간에 서로 말만 하면서, 서로 너 잘못했다, 나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저쪽이 잘못했으면 그때 금강산관광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일단 저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다음에 박 대표님.

○진술인 박흥식 정부가 투자승인을 해 가지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이 공장에 26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 들어오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합숙소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 처음 만들 때 남과 북이 합숙소를 같이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그 예산이 그 당시에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약속은 이행이 되어야 되고요, 기업은 정부가 약속한 것을 보고 기업은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남측의 자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왜 안 짓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퍼주기가 아니거든요. 퍼준다는 것은 대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기업은 절대적으로 퍼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했고요, 따라서 합숙소 문제는 조속히 지어져서 우리 남측의 투자한 기업들이 자기 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도 또 개별 기업에게도 이익이고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이미 투자된 기업의 필요한 인력만큼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술인 김영일 제 경우는 조금 포괄적으로, 만약에 정부라면 제가 오랫동안 대북사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정부 사람이라면, 내가 정부의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다면 민간경협을 허용해서, 다시 얘기해서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서해바다에 남북이 공동어로를 해서 백령도·연평도 어민들이 잡을 수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것이다 ……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맡기십시오.

그다음에 황해남도 소프트랜딩 하는 겁니다. 지금 개성의 중부지방에 소프트랜딩 했습니다. 동부 쪽 소프트랜딩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우선은 황해도입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금강산도 재개시키고 개성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황해남도를 소프트랜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그거는 북쪽하고 다 얘기가 됐고요.

또 하나 재미나는 것은 언젠가 북한에 나무심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반대했습니다. 언제 나무를 심느냐, 물론 북한에 나무가 없습니다. 초지 조성을 해서 소, 돼지, 닭 키워서 반은 거기 주고 반은 우리가 가지고 오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은 무력으로 하지 말고 우리 기업인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인이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한테 돈 달란 적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황해남도, 황해도를 소프트랜딩해서 공동어로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원도 개발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희토류 같은 거는 황해남도에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개발하고 그 돈으로 도로도 놔주고, 하던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변했냐면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건으로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맡기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돈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김성수 위원 교류협력국장 나와 계세요?

○통일부교류협력국장 서호 예, 나와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박주선 여기 앉으세요. 명패만 있는 장관석에 좀 앉아 봐요.

○김성수 위원 신원의 박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에 예산을 세웠는데 합숙소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통일부교류협력국장 서호 개성공단 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답변하세요.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최보선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입니다.

개성공단사업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사실관계

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될 때 남북이 합숙소를 짓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신원의 박 사장님께서 보고과정에서 말씀했듯이 개성공단 사업이라는 것은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이라는 것이 대전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은 북측이 책임지고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22일 날 현대아산과 아태 간에 합의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속칭 여러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인들의 옷을 벗겨서라도 근로자를 대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사업이 진행되면서, 1단계 개성공단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시뮬레이션 과정상에서는 1단계 모두 완공되었을 때, 우리 기업 450개가 다 입주되었을 때 필요한 인력이 대충 6만 500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시점, 그러니까 2007년 상반기 시점 그 당시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기업이 60개가 있었는데 벌써 3만 5000명의 근로자를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도 만성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래서 이 개성공단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남북 간에 협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7년 상반기부터 협상을 시작해 가지고 우리 입장은 어찌되었든 간 '근로자의 공급은 북측 너희들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결해라' 했던 것이고, 북측은 '좋다, 우리 해결한다고 했지만 기업들이 애초에 1단계가 다 되면 6만 5000명이 필요하다 했었는데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1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애초에 추진이 잘못되었으니까 남쪽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북측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2007년 12월 21일 날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를 한 것이 그러니까 애초에 합의한 것이 아니고 2007년 12월 21일 날 합의를 하였는데, 2007년 12월 21일 합의 내용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합숙소만 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좋다, 우리가 합숙소를 지어줄 테니까 대신 북측 너희들도 해야 할 것은 해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측이 우리한테 해 줘야 할 것이 뭐였느냐 하면, 통행·통신·통관에 대해서 3통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합숙소도 지어주겠다.

두 번째, 이 합숙소를 짓는 데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합숙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근로자가 앞으로 총 얼마나 필요하냐, 기업들이 개성공단은 임금이 싸니까 근로자를 계속 요구한다면 북측도 끊임없이 대줄 수 없지 않습니까? 북측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측 기업들이 요구하는 근로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자기는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개성공단에 깔린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요구하는 근로자들을 계속 대 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6만 500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성공단 인프라 모든 걸 다 했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 현재 단위면적당 근로자 인구를 하면 24만 명이 필요합니다. 우청보다 더 큰 신도시를 건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숙소 문제를 하기 전에 사전에 양측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요구하는 수가 얼마, 북측이 제공할 수 있는 수가 얼마라는 것을 합의하자, 그러니까 사전 실태조사 합의 플러스 우리가 기숙사를 대주는 대신에 북측이 해야 할 것, 3통 문제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맞교환된 것이 2007년 12월 21일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부 입장은 그 합의서대로 북측이 3통 문제에 진전을 보이고 사전 실태조사에 응해 가지고 서로 간에 수요와 공급이 합의된다면 기숙사를 지어주겠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김성수 위원 신원의 박사장님, 기업이 한 260억을 투자할 때는 그런 게, 기숙사 같은 게 전제되지 않고 무조건 단독으로 투자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진술인 박흥식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7년도에 그러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저희들은 그 이후 2008년도에 공장에 투자를 해서 1년 뒤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금처럼 그런 전제조건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전제가 우리나라가 했건 북측이 했건 간에 투자를 했고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거고요. 우리는 그런 전제조건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또 투자를 했고, 우

리 정부에서도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이 되어 있고, 공장은 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수 위원 하나의 예지만 신원 박사장님 경우에는 정부에서 해결방안이 없는 거예요?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최보선 저희들 개성공단이 사실, 물론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근로자 수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근로자의 수급관계에 대해서 남북 간에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분양을 받은 기업이 다 들어갔을 때, 1단계 다 들어갔을 때 15만이면 15만, 20만이면 20만, 이것이 확정이 되고.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이 그중에 80%, 다음에 고졸인력이 얼마, 이것이 사전에 조사가 되고 남북 간에 합의가 되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계획이 그렇다면 앞으로 10만 명의 기숙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내부의 합의를 거치고, 그러면 10만 명 했는데 금년도에 1만 채를 짓고, 다음에 3만 채를 짓고, 다음에 7만 채를 짓는다.

그렇다면 기숙사가 또 짓는 기간 중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공급된 근로자는…… 2007년 12월 합의서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 플랜은 짰습니다마는 일단 버스를 운영한다, 두 번째는 통근열차를 운영한다. 2007년 12월 합의서에 있습니다. 통근열차를 운영한다, 다음에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연결도로를 만든다.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플랜을 짜 가지고 시작해야지, 지금 부족한 기업들, 개개의 기업들한테 하나하나 채워 주면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김성수 위원 됐습니다.

김영일 대표님한테, 금강산 사업이나 아니면……

아니, 단장님은 계시라니까요.

○통일부교류협력국장 서호 금강산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성수 위원 두 군데는 정부 지원이 있는데, 애초부터 그전부터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부 지원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통일부교류협력국장 서호 이미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은 별도로 개성공단 단장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남북교역업체, 경협사업자, 그리고 금강산 협력업체들 이쪽은 저희들이 특별대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김 대표님 입장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저승사자이고 전혀 도움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정부당국이 해 놓은 게 있냐……

○통일부교류협력국장 서호 그래서 저희가 5·24 조치 이후로, 저희들은 물론 북한의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그와 관련해서 북한에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김영일 대표님이나 또 지난 2007년 8월 달에 발생한 금강산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 받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로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5·24 조치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지난번에 특별대출을 해 왔던 그런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숙 위원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님, 금강산 관광 시작된 게 99년 몇 월이지요?

○진술인 김영수 98년 11월 18일.

○박선숙 위원 98년 11월 18일, 그 시점에도 남북관계에 별다른 일들이 없었습니까?

○진술인 김영수 아니요, 98년 6월에 소떼 방북이 있었고요.

○박선숙 위원 아니, 긍정적인 것 말고, 지금처럼 경색시킬 만한 요인이……

○진술인 김영수 예, 말씀…… 그때에 제가 잘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8월인가 대포동 미사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선숙 위원 대포동 미사일 발사하고 얼마 안 돼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술인 김영수 예.

○박선숙 위원 그리고 또 지난 10년 동안에도 연평도에서 사상자가 나는 해전들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도 금강산 관광은 계속되었었지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진술인 김영수 예, 99년 6월 달 1차 서해교전 때도 금강산 관광은 계속되었는데, 그때는 그 5일 후에 다른 사건으로 45일간 중단이 되었습니

다. 관광객 억류 사건으로 45일간 중단되었습니다.

○박선숙 위원 저는 세 분 하실 말씀 정말 많으시겠지만, 자료도 잘 봤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하고 경제를 분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애초에 이 사업 자체, 세 분 나와 계시지만 남북 간의 경제협력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통일되고 난 다음에 하라고 혹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통일되고 난 다음에 경협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까 김영일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북한과 남한 간의 경제력 격차를 통일 이후까지 그냥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말씀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경제협력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남기기 위한 사업적 관점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천안함이 나든 연평도가 나든 한반도가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수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은 한반도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둔감해져 있는데,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 외국에서 빌려온 돈 이자 같은 것 떼거든요. 거기에서 감수해야 될 비용들이…… 사실은 경제협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 그래도 저렇게 유지되고 있는 걸 보면 한반도가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안심을 주는 것이지요, 국제사회에. 그런데 그 희생과 대가는 전부 기업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정경분리하고 경제에 관해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되도록 정부가 그 원칙을 확고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아직도 이 정부가 임기가 1년 반이 남았고, 지금까지의 손실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대통령과 정부의 결심을 촉구하는데요. 당장에 그것을 못하겠다면 김영일 대표님, 남북 직접 투자해서 교역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시설·건물을 관리하는 입국은 허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검토해 주십시오.

개성공단 대표해서 신원의 박홍식 대표님 말씀하신 합숙소 문제, 앞에 단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도 전체적으로 2007년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5·24 조치 이후에 중단되어 있는 시설물 관리 인력들에 대한 것, 또 어려워져 갖고 대출해 주신 것 유예되는 문제, 그쪽에 넘어갈 수 있는 인원을 700명 수준으로 일단 제한해 놨는데 더 필요한 인원 풀어 주는 문제, 할 수 있는 건 좀 하면서……

큰 대전환이라는 게 갑자기 대통령 결심해 가지고 둑 터지듯이 당장이라도 되면 좋은데, 그것 안 되는 동안에 1년 반을 그냥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충분히 말씀 주셨는데요.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니까 남북 당국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질문을 드리는 대신 대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답변은 요청하지 않으세요?

○박선숙 위원 우리 당국자들이 메모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회의 이후에 제가 드린 문제 지적에 대해서, 또 우리 세 분 대표님들이 나오셔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남북관계특위 다음번 회의 이전에, 저는 5월 중에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십시오.

○위원장 박주선 잠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일부 관계자께 묻겠는데요.

개성공단 입주기업체들이 근로자 충족 문제 때문에 2007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항상 거명하면서 근로자합숙소 건립을 주장해 오는데 벌써 금년이 2011년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아까 남북관계가 경색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

어서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24 조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소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장애는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합숙문제가 남북 간 합의에 진척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합의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또 합의가 안 됐다고 한다면 무슨 이유로 어떤 점에서 합의가 안 된 겁니까?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최보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20일 합의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통행, 개성공단과 남측 간에 자유통행이 이루어져야 개성공단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통신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관입니다. 현재 통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모든 것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제 수준 2%내로 선별 통관을 하자는 것이 합의됐던 겁니다. 그 세 가지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항목이 개성공단에 기숙사가 지어질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니까 기숙사가 지어지는 기간 동안에 개성공단보다 조금 더 먼 중거리 지역의 국지인력을 개성공단에 투입하기 위한 통근열차 운행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마지막 항이 기숙사 건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7년 합의 이후에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협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 가지 문제를 북측이 아쉬워하는 기숙사 문제를 차제에 걸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3통 문제라든지 통근열차 운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대로 하자, 합의서대로 후속 이행조치를 하자라는 협상이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협상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 측에 요구해야 되는 사항도 많고 또 관철될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도 다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완벽한 자유, 통신·통행·통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상태에서도 개성공단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또 근로자가 4만 6000명 정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부족하니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합숙소를 먼저 건설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부터의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하면 될 텐데, 합숙소 건립을 조건으로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최보선 아니, 애초에 합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위원장 박주선 알았어요.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최보선 두 번째는 그것 이외에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 플랜을 남북이 합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적정 수준에서 합의가 되어야 거기에 입각해서 후속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근로자를 요구하는 이 상황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위원장 박주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대체하기 위해서 요구를 할게요. 그 당시에 합숙소를 건립하기 위한 남북한 간의 합의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상태로, 기업주는 여러 가지 애로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을 계속 방치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오늘 특위에서 세분을 모셔다 놓고 이야기한 진정한 의미를 좀 알아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다음에 '통일 후에 경제협력을 하고 지금은 경제협력을 하지 말라'고 정부 유력자 어느 분이 말씀하셨다고 김영일 고문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술인 김영일 예, 저하고 좀 다퉜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까?

○진술인 김영일 그것은 현 정부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얘기해 둡니다. 비핵 개방 3000을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사실 개성공단 합숙소는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건 100% 동의하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천상의 소리로 들립니다.

저희 네는 지금 옛날에 만들었던 북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얘기는 '장사란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편입니다. 이것도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조속히 북한주민들하고 우리 거래선하고 편안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주선 김영일 고문님, 참 절규에 가까운 읍소를 하고 계시는데……

정부 잘 들어봐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업인들이 현 상황에서 근로자 수급문제가 가장 큰 애로고 문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당초에 합의했던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근로자 숙소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근로자 공급 장애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합의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척이안 된다? 그 합의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합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20명의 특위위원 중에서 열두 분이 여기를 참여하셨다가 질의하고 또 다른 업무가 중복이 되고 그래서 지금 자리를 뜨셨는데, 이 내용은 통일부장관부터 관계자들도 지금 계속해서 여기 와 있고 또 속기록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기록이 되고, 또 이 내용을 전문위원들이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고 그럴 테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 숫자가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내용을 해결하고 못하고 하는 관건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장시간 동안 진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상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100% 말씀은커녕 10%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감히 추측을 넘어서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들도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용경 위원님하고 박선숙 위원님, 그리고 제가 통일부 측에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답변 내용을 담아서 전달해 주시고 그 내용은 우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사업 수행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남북경제협력사업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대안들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의지를, 그리고 우리 진술인 세 분이 절규에 가까운 읍소한 내용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독일통일을 남북통일 내지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북정책의 한 모범으로 삼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독 후에 통일 전의 독일, 통일과정의 독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야 위원들이 전문가들과 같이 독일로 한 5일 동안 세미나를 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에 방문했던 세미나에 참여한 발제자나 토론자 모두가 '독일 통일에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통일을 준비해라, 그것이 뭐냐 하면 북한과 남한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간 다음에 통일을 해야지,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의 통일은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한민국 통일이 아니고 민족의 분열만 일어나고 혼란과 무질서만 탄생을 시킬 것이다' 그런 교훈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일 고문께서 말씀을 들었다는 비핵개방3000을 입안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라는 정부 유력자 생각이 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를 하셨고, 다시 한번 김영수 상무님, 박홍식 부회장님, 김영일 고문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 성 수	김 재 윤	문 학 진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주 선	송 영 선	신 지 호
이 용 경	이 윤 석	이 철 우	정 옥 임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성	석	호
전 문 위 원	권	기	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통일부

장 관	현	인	택
기 획 조 정 실 장	김	호	년
교 류 협 력 국 장	서		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최	보	선

○출석 진술인

박흥식(신원 대표)

김영일(효원물산 대표)

김영수(현대아산 상무)